

1997學年度 新人生 實態調查

金 斗 和*

목 차	
I. 머리말	III. 결과 분석
II. 조사방법 및 내용	IV. 요약 및 제언

I. 머 리 말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학과 선택의 동기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특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1997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97년 2월 26일부터 2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각 학과(부)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후 회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부교수

2. 學生生活研究

하도록 하였다. 전체 신입생은 2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121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전체 신입생의 81.5%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수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응답자수	331	15.6	209	9.8	287	13.5	150	7.1	203	9.5	212	9.9	364	17.1	365	17.2	1,152	54.3	969	45.6	2,121	100.0

신입생의 출생년도별 빈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78년도와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만 18세 이하)이 1,867명(88.0%)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7년에 출생한 학생 128명(6.0%)이며, 이외의 연령은 1%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순위 경향은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 '78년도와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만18세 이하)이 83.9%, 여학생인 경우 92.9%로 여학생이 높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95년도와 비교해 보면, 만18세 이하인 경우 87.1%→88.0%, 만19세인 경우는 6.7→6.0%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 출생년도별 분포

구분 연령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72년 이전	6	1.8	31	14.8	13	4.5	2	1.3	1	0.5	1	0.5	3	0.8	1	0.3	45	3.9	13	1.3	58	2.7
'73년	-	-	8	3.8	4	1.4	1	0.7	1	0.5	-	-	1	0.3	-	-	14	1.2	1	0.1	15	0.7
'74년	2	0.6	9	4.3	3	1.0	-	-	1	0.5	-	-	-	-	1	0.3	13	1.1	3	0.3	16	0.8
'75년	2	0.6	2	1.0	2	0.7	1	0.7	2	1.0	-	-	1	0.3	2	0.5	6	0.5	6	0.6	12	0.6
'76년	5	1.5	6	2.9	5	1.7	1	0.7	1	0.5	1	0.5	-	-	3	0.8	17	1.5	5	0.5	22	1.0
'77년	29	8.8	15	7.2	6	2.1	5	3.3	18	8.9	8	3.8	24	6.6	23	6.3	88	7.6	40	4.1	128	6.0
'78년	241	72.8	111	53.1	189	65.9	113	75.3	137	67.5	156	73.6	264	72.5	267	73.2	757	65.7	721	74.4	1,478	69.7
'79년	45	13.6	27	12.9	65	22.6	27	18.0	41	20.2	46	21.7	71	19.5	67	18.4	210	18.2	179	18.5	389	18.3
'80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무응답	1	0.3	-	-	-	-	-	-	1	0.5	-	-	-	-	1	0.3	2	0.2	1	0.1	3	0.1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96학년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동일하다.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사항 : 생활근거지, 입학후 거주할 곳, 재수 경험,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직업, 부모의 생존여부, 가족수, 가족의 월수입, 가정분위기, 부모에 대한 느낌, 부모의 관심도
- 2) 대학생활 : 재학중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장학금,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생활중 하고 싶은 일, 서어클활동 분야, 입학후 걱정거리, 제주대에 입학한 자긍심,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아르바이트 희망이유
- 3) 학과선택 : 학과(부) 지망동기, 학과(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학과(부) 선택 요인, 지망학과(부)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학과(부) 선택시기, 지망학과(부)에 대한 인지도, 전공공부 계속여부
- 4) 진로선택 : 장래의 직업
- 5) 교수와의 관계 : 교수에 대한 기대
- 6) 고교생활 : 과외지도 경험 및 형태, 고교생활의 만족도
- 7) 대인관계 : 대인관계 정도, 이성친구 유무,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생활상의 문제, 개인문제 의논대상
-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
- 9) 가 치 관 : 성공의 조건
- 10) 학생생활연구소 상담 : 상담 희망여부, 상담내용

이상과 같이 10개영역 4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II. 결과 분석

1. 인적 배경

1) 학생의 생활근거지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다음 <표 3>과 같다. 제주시가 58.1%, 서귀포시 12.8%, 그외

4 · 學生生活研究

읍·면 단위가 단위가 23.4%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5.4%로 극히 미약한 편이다. 한편, 남녀 또는 대학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표 3〉 신입생의 생활근거지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206	62.2	118	56.5	175	61.0	86	57.3	88	43.3	127	59.9	210	57.7	222	60.8	626	54.3	606	62.5	1,232	58.1
서귀포시	53	16.0	25	12.0	37	12.9	22	14.7	24	11.8	31	14.6	45	12.4	34	9.3	131	11.4	140	14.4	271	12.8
애월읍	8	2.4	12	5.7	8	2.8	4	2.7	4	2.0	5	2.4	13	3.6	22	6.0	47	4.1	29	3.0	76	3.6
한림읍	10	3.0	10	4.8	9	3.1	8	5.3	7	3.4	6	2.8	12	3.3	8	2.2	38	3.3	32	3.3	70	3.3
한경면	-	-	3	1.4	2	0.7	1	0.7	4	2.0	-	-	1	0.3	2	0.5	10	0.9	3	0.3	13	0.6
대정읍	10	3.0	4	1.9	8	2.8	2	1.3	9	4.4	5	2.4	19	5.2	14	3.8	42	3.6	29	3.0	71	3.3
안덕면	3	0.9	4	1.9	7	2.4	7	4.7	5	2.5	1	0.5	5	1.4	11	3.0	25	2.2	18	1.9	43	2.0
남원읍	10	3.0	5	2.4	8	2.8	5	3.3	6	3.0	11	5.2	8	2.2	14	3.8	47	4.1	20	2.1	67	3.2
표선면	2	0.6	1	0.5	2	0.7	2	1.3	2	1.0	-	-	3	0.8	1	0.3	7	0.6	6	0.6	13	0.6
성산읍	5	1.5	3	1.4	3	1.0	-	-	6	3.0	4	1.9	4	1.1	6	1.6	19	1.6	12	1.2	31	1.5
구좌읍	11	3.3	4	1.9	6	2.1	3	2.0	3	1.5	5	2.4	6	1.6	14	3.8	29	2.5	23	2.4	52	2.5
조천읍	4	1.2	1	0.5	9	3.1	8	5.3	2	1.0	8	3.8	13	3.6	10	2.7	29	2.5	26	2.7	55	2.6
우도면	-	-	1	0.5	-	-	1	0.7	-	-	-	-	2	0.5	1	0.3	3	0.3	2	0.2	5	0.2
추자면	-	-	-	-	-	-	-	-	-	-	-	-	1	0.3	-	-	1	0.1	-	-	1	0.0
서울	-	-	4	1.9	6	2.1	-	-	13	6.4	-	-	2	0.5	1	0.3	23	2.0	3	0.3	26	1.2
부산	1	0.3	4	1.9	2	0.7	1	0.7	13	6.4	6	2.8	7	1.9	-	-	29	2.5	5	0.5	34	1.6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 구	-	-	-	-	-	-	-	-	3	1.5	-	-	-	-	-	-	-	-	2	0.2	1	0.1	3	0.1
대 전	1	0.3	-	-	-	-	-	-	-	-	-	-	2	0.5	-	-	-	-	2	0.2	1	0.1	3	0.1
인 천	-	-	-	-	-	-	-	-	2	1.0	-	-	2	0.5	-	-	-	-	3	0.3	1	0.1	4	0.2
광 주	-	-	-	-	-	-	-	-	1	0.5	-	-	2	0.5	-	-	-	-	3	0.3	-	-	3	0.1
경 기	1	0.3	2	1.0	1	0.3	-	-	1	0.5	-	-	1	0.3	2	0.5	-	-	5	0.4	3	0.3	8	0.4
경 북	-	-	4	1.9	2	0.7	-	-	-	-	-	-	3	0.8	2	0.5	-	-	10	0.9	1	0.1	11	0.5
경 남	1	0.3	1	0.5	1	0.3	-	-	5	2.5	1	0.5	-	-	-	-	-	-	9	0.8	-	-	9	0.4
충 북	-	-	-	-	-	-	-	-	-	-	-	-	1	0.3	-	-	-	-	-	-	1	0.1	1	0.0
충 남	1	0.3	-	-	-	-	-	-	-	-	-	-	1	0.3	-	-	-	-	1	0.1	1	0.1	2	0.1
전 북	1	0.3	-	-	-	-	-	-	1	0.5	-	-	-	-	1	0.3	-	-	2	0.2	1	0.1	3	0.1
전 남	3	0.9	3	1.4	-	-	-	-	3	1.5	2	0.9	1	0.3	-	-	-	-	7	0.6	5	0.5	12	0.6
해 외	-	-	-	-	-	-	-	-	-	-	-	-	-	-	-	-	-	-	-	-	-	-	-	-
무응답	-	-	-	-	1	0.3	-	-	1	0.5	-	-	-	-	-	-	-	-	2	0.2	-	-	2	0.1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

신입생들의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본가가 61.2%로 가장 많고, 자취가 27.4%, 기숙사가 4.8%, 친척 및 친지가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른 대학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숙사인 경우 남학생이 6.7%(77명)로서 여학생의 2.6%(25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

구분 거주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본 가	210	63.4	143	68.4	175	61.0	95	63.3	93	45.8	131	61.8	209	57.4	243	66.6	690	59.9	609	62.8	1,299	61.2
친척 및 친	13	3.9	2	1.0	9	3.1	14	9.3	14	6.9	8	3.8	14	3.8	11	3.0	44	3.8	41	4.2	85	4.0
자 취	94	28.4	46	22.0	83	28.9	34	22.7	62	30.5	56	26.4	113	31.0	94	25.8	303	26.3	279	28.8	582	27.4
하 숙	5	1.5	6	2.9	6	2.1	4	2.7	9	4.4	6	2.8	10	2.7	3	0.8	38	3.3	11	1.1	49	2.3
기숙사	9	2.7	12	5.7	13	4.5	2	1.3	24	11.8	11	5.2	17	4.7	14	3.8	77	6.7	25	2.6	102	4.8
무응답	-	-	-	-	1	0.3	1	0.7	1	0.5	-	-	1	0.3	-	-	-	-	4	0.4	4	0.2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 재수 경험

재수 경험의 여부에 대해 〈표 5〉와 같이 신입생들의 89.6%는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의 학생중에는 8.1%가 1년 재수를 하였고, 2년 이상 재수자는 1.7%였으며, 검정고시 입학 학생은 0.3%(7명)였다. 이러한 현상을 대학별로 보면, 1년 이상 재수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해양과학대학은 5.7%에 불과하지만 경상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과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보다 소신있게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재수 경험

구분 재수유형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없 다	294	88.8	154	73.7	268	93.4	139	92.7	180	88.7	200	94.3	332	91.2	333	91.2	989	85.9	911	94.0	1,900	89.6
1년재수	29	8.8	32	15.3	14	4.9	8	5.3	20	9.9	11	5.2	30	8.2	28	7.7	124	10.8	48	5.0	172	8.1
2년재수	5	1.5	9	4.3	3	1.0	2	1.3	1	0.5	-	-	1	0.3	2	0.5	18	1.6	5	0.5	23	1.1
3년이상 재수	1	0.3	7	3.3	1	0.3	1	0.7	-	-	1	0.5	-	-	1	0.3	9	0.8	3	0.3	12	0.6

구분 거주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검정고시	1	0.3	4	1.9	1	0.3	-	-	1	0.5	-	-	-	-	-	-	-	-	7	0.6	-	-	7	0.3
무응답	1	0.3	3	1.4	-	-	-	-	1	0.5	-	-	1	0.3	1	0.3	5	0.4	2	0.2	7	0.3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4) 학생 보호자의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을 보면, 무학~고학이 1.5%, 국졸~중퇴가 9.7%, 중졸~중퇴가 18.9%, 고졸~중퇴가 49.8%, 대졸~중퇴가 16.1%, 대학원졸 3.5%로 나타났다. 이를 '95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의 학력이 국민(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학부모 학력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학생 보호자의 학력

구분 보호자학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무학~ 고학	5	1.5	7	3.3	4	1.4	3	2.0	5	2.5	2	0.9	2	0.5	4	1.1	23	2.0	9	0.9	32	1.5
국졸~ 국중퇴	22	6.6	16	7.7	30	10.5	13	8.7	22	10.8	24	11.3	36	9.9	42	11.5	134	11.6	71	7.3	205	9.7
중졸~ 중중퇴	54	16.3	44	21.1	52	18.1	28	18.7	24	11.8	47	22.2	69	19.0	82	22.5	232	20.1	168	17.3	400	18.9
고졸~ 고중퇴	175	52.9	103	49.3	144	50.2	81	54.0	96	47.3	103	48.6	190	52.2	165	45.2	529	45.9	528	54.5	1,057	49.8
대졸~ 대중퇴	57	17.2	34	16.3	46	16.0	22	14.7	41	20.2	30	14.2	56	15.4	55	15.1	187	16.2	154	15.9	341	16.1
대학원졸 이상	16	4.8	5	2.4	10	3.5	3	2.0	14	6.9	5	2.4	8	2.2	14	3.8	43	3.7	32	3.3	75	3.5
무응답	2	0.6	-	-	1	0.3	-	-	1	0.5	1	0.5	3	0.8	3	0.8	4	0.3	7	0.7	11	0.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5)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보호자가 아버지인 경우 90.7%, 어머니 7.2%, 형·누나 0.8%, 조부모 0.6%, 친척 0.2%로서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5년도와 비교해보면 보호자가 아버지는 8.2%, 조부모는 0.1% 늘어난 반면, 모 또는 형·누나가 약간 줄어들었다.

<표 7>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구분 보호자와 의 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302	91.2	186	89.0	253	88.2	138	92.0	190	93.6	192	90.6	335	92.0	328	89.9	1,028	89.2	896	92.5	1,924	90.7
모	24	7.3	15	7.2	25	8.7	10	6.7	10	4.9	14	6.6	24	6.6	31	8.5	92	8.0	61	6.3	153	7.2
형·누나	3	0.9	3	1.4	3	1.0	1	0.7	1	0.5	2	0.9	2	0.5	1	0.3	11	1.0	5	0.5	16	0.8
조부모	1	0.3	1	0.5	2	0.7	1	0.7	-	-	2	0.9	1	0.3	4	1.1	9	0.8	3	0.3	12	0.6
친척	-	-	-	-	2	0.7	-	-	-	-	-	-	1	0.3	1	0.3	3	0.3	1	0.1	4	0.2
기타	1	0.3	3	1.4	1	0.3	-	-	2	1.0	-	-	1	0.3	-	-	6	0.5	2	0.2	8	0.4
무응답	-	-	1	0.5	1	0.3	-	-	-	-	2	0.9	-	-	-	-	3	0.3	1	0.1	4	0.2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6) 학생 보호자의 직업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업 16.3%, 행정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10.4%, 전문기술직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95년도와 비교해 보면 농업은 35.3%→31.5%로 3.8%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8〉 학생 보호자의 직업

구분 보호자직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문직	17	5.1	8	3.8	12	4.2	7	4.7	9	4.4	12	5.7	19	5.2	15	4.1	53	4.6	46	4.7	99	4.7
전문기술직	18	5.4	8	3.8	14	4.9	8	5.3	9	4.4	7	3.3	15	4.1	23	6.3	52	4.5	50	5.2	102	4.8
육체노동	10	3.0	3	1.4	9	3.1	4	2.7	5	2.5	13	6.1	9	2.5	9	2.5	44	3.8	18	1.9	62	2.9
경영관리직	14	4.2	6	2.9	14	4.9	4	2.7	13	6.4	7	3.3	16	4.4	18	4.9	49	4.3	43	4.4	92	4.3
행정사무직	43	13.0	24	11.5	30	10.5	14	9.3	17	8.4	23	10.8	35	9.6	34	9.3	111	9.6	109	11.2	220	10.4
군인또는경찰	5	1.5	3	1.4	3	1.0	7	4.7	7	3.4	4	1.9	8	2.2	5	1.4	20	1.7	22	2.3	42	2.0
농업	87	26.3	73	34.9	78	27.2	54	36.0	66	32.5	75	35.4	113	31.0	123	33.7	373	32.4	296	30.5	669	31.5
축산업	5	1.5	-	-	4	1.4	1	0.7	8	3.9	1	0.5	6	1.6	6	1.6	15	1.3	16	1.7	31	1.5
어업	2	0.6	6	2.9	5	1.7	4	2.7	2	1.0	4	1.9	7	1.9	8	2.2	22	1.9	16	1.7	38	1.8
수산업	3	0.9	-	-	1	0.3	1	0.7	1	0.5	4	1.9	2	0.5	7	1.9	13	1.1	6	0.6	19	0.9
판매·서비스직	36	10.9	24	11.5	33	11.5	19	12.7	17	8.4	25	11.8	33	9.1	34	9.3	116	10.1	105	10.8	221	10.4
상업	60	18.1	32	15.3	56	19.5	14	9.3	36	17.7	24	11.3	70	19.2	53	14.5	178	15.5	167	17.2	345	16.3
교직	20	6.0	8	3.8	15	5.2	10	6.7	4	2.0	6	2.8	14	3.8	17	4.7	50	4.3	44	4.5	94	4.4
무직	6	1.8	10	4.8	9	3.1	2	1.3	3	1.5	6	2.8	11	3.0	4	1.1	40	3.5	11	1.1	51	2.4
무응답	5	1.5	4	1.9	4	1.4	1	0.7	6	3.0	1	0.5	6	1.6	9	2.5	16	1.4	20	2.1	36	1.7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6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7)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표 9>와 같이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가 87.3%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95년도에 비해 0.5%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어머니만 살아계신 경우가 5.5%, 아버지만 살아계신 경우가 0.8%이다. 한편으로 양친이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도 3.7%(79명)이나 된다. 이를 '95년도에 비교하면 1.1%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학생 부모의 생존 여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양친모두 사 망	1	0.3	2	1.0	2	0.7	1	0.7	-	-	3	1.4	2	0.5	1	0.3	10	0.9	2	0.2	12	0.6
모 사 망	2	0.6	3	1.4	3	1.0	-	-	1	0.5	1	0.5	5	1.4	2	0.5	13	1.1	4	0.4	17	0.8
부 사 망	19	5.7	10	4.8	19	6.6	11	7.3	5	2.5	13	6.1	19	5.2	20	5.5	70	6.1	46	4.7	116	5.5
양친생존 동	295	89.1	186	89.0	249	86.8	131	87.3	186	91.6	182	85.8	317	87.1	306	83.8	982	85.2	870	89.8	1,852	87.3
양친생존 별 거 중	6	1.8	3	1.4	5	1.7	2	1.3	2	1.0	4	1.9	5	1.4	11	3.0	20	1.7	18	1.9	38	1.8
양친생존 이 혼	3	0.9	3	1.4	5	1.7	3	2.0	4	2.0	4	1.9	9	2.5	10	2.7	23	2.0	18	1.9	41	1.9
무응답	5	1.5	2	1.0	4	1.4	2	1.3	5	2.5	5	2.4	7	1.9	15	4.1	34	3.0	11	1.1	45	2.1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8) 학생의 가족수(본인 포함)

본인을 포함한 학생의 총가족수를 알아본 결과, 5인 가족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95년도 33.1%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4인 가족으로 25.0%로서, '95년도 18.9%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6인 19.8%, 7인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까지 8인과 9인 등 대가족의 경우도 6.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5년도 18.1%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학생 혼자인 경우도 1명이 있으며, 2인 가족(학생과 부, 또는 모만 동거)도 1.0%(22명)가 된다.

〈표 10〉 학생의 가족수(본인 포함)

구분 가족수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 명	-	-	1	0.5	-	-	-	-	-	-	-	-	-	-	-	-	-	1	0.1	-	-	1	0.0
2 명	2	0.6	5	2.4	4	1.4	-	-	4	2.0	2	0.9	3	0.8	2	0.5	14	1.2	8	0.8	22	1.0	
3 명	10	3.0	14	6.7	12	4.2	4	2.7	8	3.9	5	2.4	11	3.0	15	4.1	55	4.8	24	2.5	79	3.7	
4 명	71	21.5	56	26.8	65	22.6	29	19.3	56	27.6	65	30.7	91	25.0	97	26.6	359	31.2	171	17.6	530	25.0	
5 명	117	35.3	66	31.6	87	30.3	49	32.7	67	33.0	78	36.8	130	35.7	122	33.4	386	33.5	330	34.1	716	33.8	
6 명	76	23.0	38	18.2	63	22.0	40	26.7	34	16.7	35	16.5	71	19.5	64	17.5	179	15.5	242	25.0	421	19.8	
7 명	31	9.4	15	7.2	29	10.1	15	10.0	18	8.9	12	5.7	43	11.8	40	11.0	95	8.2	108	11.1	203	9.6	
8 명	15	4.5	10	4.8	16	5.6	9	6.0	9	4.4	10	4.7	7	1.9	15	4.1	33	2.9	58	6.0	91	4.3	
9 이 이상	7	2.1	4	1.9	9	3.1	3	2.0	6	3.0	4	1.9	8	2.2	5	1.4	22	1.9	24	2.5	46	2.2	
무응답	2	0.6	-	-	2	0.7	1	0.7	1	0.5	1	0.5	-	-	5	1.4	8	0.7	4	0.4	12	0.6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9) 학생 가족의 월수입

가정의 월수입은 〈표 11〉과 같다. 181만원 이상이 19.0%로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101~120만원이 15.3%, 81~100만원이 12.3%, 121~140만원이 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80만원 이하인 가족도 9.1%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95년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80만원 이하인 경우 '95년도는 15.6%나 되었으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95년도에는 64.3%에 비해 금년도는 71.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수입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학생 가족의 월수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20만원 이하	2	0.6	2	1.0	2	0.7	-	-	-	-	4	1.9	5	1.4	3	0.8	15	1.3	3	0.3	18	0.8
21 ~ 40만원	2	0.6	-	-	2	0.7	1	0.7	5	2.5	4	1.9	6	1.6	7	1.9	18	1.6	9	0.9	27	1.3
41 ~ 60만원	3	0.9	7	3.3	12	4.2	3	2.0	8	3.9	4	1.9	8	2.2	8	2.2	28	2.4	25	2.6	53	2.5
61 ~ 80만원	15	4.5	8	3.8	10	3.5	7	4.7	9	4.4	10	4.7	17	4.7	20	5.5	61	5.3	35	3.6	96	4.5
81 ~ 100만원	32	9.7	25	12.0	31	10.8	21	14.0	17	8.4	34	16.0	49	13.5	51	14.0	145	12.6	115	11.9	260	12.3
101 ~ 120만원	58	17.5	35	16.7	40	13.9	20	13.3	27	13.3	33	15.6	61	16.8	51	14.0	189	16.4	136	14.0	325	15.3
121 ~ 140만원	30	9.1	21	10.0	39	13.6	14	9.3	19	9.4	22	10.4	34	9.3	31	8.5	120	10.4	90	9.3	210	9.9
141 ~ 160만원	26	7.9	29	13.9	23	8.0	8	5.3	13	6.4	19	9.0	32	8.8	38	10.4	115	10.0	73	7.5	188	8.9
161 ~ 180만원	26	7.9	12	5.7	21	7.3	12	8.0	16	7.9	17	8.0	11	3.0	15	4.1	54	4.7	76	7.8	130	6.1
181만원 이상	64	19.3	36	17.2	55	19.2	21	14.0	63	31.0	40	18.9	64	17.6	60	16.4	239	20.7	164	16.9	403	19.0
무응답	73	22.1	34	16.3	52	18.1	43	28.7	26	12.8	25	11.8	77	21.2	81	22.2	168	14.6	243	25.1	411	19.4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0) 학생의 가정분위기

학생의 가정분위기를 보면, 화목하다는 반응이 86.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화가 있다는 반응에도 13.2%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 및 남녀별로는 별 차이가 없다.

〈표 12〉 학생의 가정분위기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불화가함	6	1.8	5	2.4	7	2.4	1	0.7	4	2.0	5	2.4	4	1.1	7	1.9	28	2.4	11	1.1	39	1.8
약간불화가 있다	33	10.0	22	10.5	33	11.5	21	14.0	17	8.4	24	11.3	48	13.2	44	12.1	154	13.4	88	9.1	242	11.4

구분 가정분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비교적 매우	205	61.9	147	70.3	180	62.7	95	63.3	123	60.6	141	66.5	219	60.2	219	60.0	707	61.4	622	64.2	1,329	62.7
매우 무응답	84	25.4	34	16.3	63	22.0	33	22.0	57	28.1	42	19.8	93	25.5	88	24.1	253	22.0	241	24.9	494	23.3
무응답	3	0.9	1	0.5	4	1.4	-	-	2	1.0	-	-	-	-	7	1.5	10	0.9	7	0.7	17	0.8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 13>과 같이 알아본 결과, 만족하다는 반응이 78.1%이고, 그저 그렇다 14.4%, 불만족스럽다 6.4%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럽다에 남학생이 79.1%로 여학생의 77.1%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3>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구분 부모에 대한 느낌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만족	62	18.7	40	19.1	61	21.3	23	15.3	61	30.0	43	20.3	90	24.7	83	22.7	265	23.0	198	20.4	463	21.8
만족	194	58.6	126	60.3	157	54.7	89	59.3	109	53.7	125	59.0	194	53.3	201	55.1	646	56.1	549	56.7	1,195	56.3
그저 그렇다	44	13.3	26	12.4	48	16.7	28	18.7	21	10.3	28	13.2	53	14.6	57	15.6	156	13.5	149	15.4	305	14.4
불만족	24	7.3	12	5.7	13	4.5	9	6.0	9	4.4	11	5.2	22	6.0	13	3.6	54	4.7	59	6.1	113	5.3
매우 불만	3	0.9	1	0.5	4	1.4	1	0.7	1	0.5	4	1.9	4	1.1	5	1.4	17	1.5	6	0.6	23	1.1
무응답	4	1.2	4	1.9	4	1.4	-	-	2	1.0	1	0.5	1	0.3	6	1.6	14	1.2	8	0.8	22	1.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학생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크거나 있

다는 반응이 74.6%, 보통이다가 21.5%, 관심이 적거나 없다가 3.0%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관심이 크거나 있다에 여학생은 70.5%이나 남학생은 78.0%를 보이고 있어서 11)의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4〉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구분 부모의 관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관심이 크다	158	47.7	105	50.2	138	48.1	77	51.3	108	53.2	89	42.0	184	50.5	173	47.4	577	50.1	455	47.0	1,032	48.7
약간 관심이 있음	85	25.7	58	27.8	73	25.4	32	21.3	53	26.1	63	29.7	87	23.9	98	26.8	321	27.9	228	23.5	549	25.9
보통	75	22.7	36	17.2	64	22.3	37	24.7	35	17.2	53	25.0	78	21.4	79	21.6	201	17.4	256	26.4	457	21.5
관심이 적음	6	1.8	5	2.4	7	2.4	3	2.0	4	2.0	5	2.4	13	3.6	10	2.7	31	2.7	22	2.3	53	2.5
전혀 관심이 없음	3	0.9	2	1.0	2	0.7	-	-	1	0.5	2	0.9	1	0.3	-	-	8	0.7	3	0.3	11	0.5
무응답	4	1.2	3	1.4	3	1.0	1	0.7	2	1.0	-	-	1	0.3	5	1.4	14	1.2	5	0.5	19	0.9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3) 재학중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학생이 재학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에서,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경우가 89.3%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는 '95년도 학비조달 방법을 물어본 응답에서 89.4%를 보여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경우가 8.3%로 나타났으며, 그외 조부모, 친척, 형제의 도움을 받는다는 1.2%로 매우 낮게 반응하였다. 비록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지만 아직도 학생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재학중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본인	16	4.8	33	15.8	29	10.1	7	4.7	7	3.4	5	2.4	18	4.9	13	3.6	82	7.1	46	4.7	128	6.0		
보호자	302	91.2	163	78.0	246	85.7	139	92.7	188	92.6	196	92.5	324	89.0	337	92.3	1,009	87.6	886	91.4	1,895	89.3		
친척	-	-	-	-	2	0.7	-	-	-	-	-	-	2	0.9	2	0.5	-	-	6	0.5	-	-	6	0.3
형제	2	0.6	2	1.0	4	1.4	-	-	1	0.5	-	-	2	0.5	1	0.3	8	0.7	4	0.4	12	0.6		
조부모	-	-	-	-	2	0.7	-	-	-	-	-	-	4	1.9	1	0.3	6	0.5	1	0.1	7	0.3		
교내 장학금	4	1.2	3	1.4	2	0.7	3	2.0	1	0.5	4	1.9	13	3.6	6	1.6	17	1.5	19	2.0	36	1.7		
교외 장학금	4	1.2	2	1.0	1	0.3	1	0.7	3	1.5	1	0.5	1	0.3	-	-	5	0.4	8	0.8	13	0.6		
무응답	3	0.9	6	2.9	1	0.3	-	-	3	1.5	-	-	4	1.1	7	1.9	19	1.6	5	0.5	24	1.1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4)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재학중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가 42.6%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26.5%, 장학금이 필요없다가 14.1%, 생활비 충당을 위해 12.9%로 나타나고 있어 재학중 학생들이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필요없다	34	10.3	27	12.9	38	13.2	19	12.7	37	18.2	46	21.7	56	15.4	42	11.5	188	16.3	111	11.5	299	14.1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84	25.4	63	30.1	76	26.5	38	25.3	59	29.1	53	25.0	99	27.2	90	24.7	327	28.4	235	24.3	562	26.5
생활비 충당을 위해	41	12.4	20	9.6	35	12.2	13	8.7	32	15.8	35	16.5	48	13.2	50	13.7	183	15.9	91	9.4	274	12.9
등록금 충당을 위해	158	47.7	82	39.2	126	43.9	76	50.7	67	33.0	74	34.9	153	42.0	167	45.8	405	35.2	498	51.4	903	42.6
무응답	14	4.2	17	8.1	12	4.2	4	2.7	8	3.9	4	1.9	8	2.2	16	4.4	49	4.3	34	3.5	83	3.9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5) 대학 진학의 목적

학생의 대학 진학의 목적을 보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95년도의 24.5%에 비해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소질개발을 위해서가 23.4%,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22.0%의 순이며, 그외 주위 권유, 사회적 지위 획득, 교양습득 등의 목적에도 21.5%가 나타났으며, 이는 '95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7〉 대학진학의 목적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69	20.8	67	32.1	113	39.4	40	26.7	43	21.2	71	33.5	84	23.1	132	36.2	364	31.6	255	26.3	619	29.2
교양습득을 위해	18	5.4	17	8.1	13	4.5	4	2.7	10	4.9	11	5.2	22	6.0	16	4.4	56	4.9	55	5.7	111	5.2
주위의 권유에 의해	15	4.5	14	6.7	13	4.5	26	13.3	43	21.2	34	16.0	34	9.3	23	6.3	131	11.4	65	6.7	196	9.2
배우자선택에 유리하도록	5	1.5	2	1.0	3	1.0	1	0.7	4	2.0	3	1.4	9	2.5	2	0.5	20	1.7	9	0.9	29	1.4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19	5.7	19	9.1	23	8.0	10	6.7	16	7.9	24	11.3	23	6.3	17	4.7	30	2.8	61	6.3	151	7.1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128	38.7	30	14.4	48	15.7	42	28.0	30	14.8	32	15.1	98	26.9	88	24.1	235	20.4	261	26.3	496	23.4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69	20.8	58	27.8	70	24.4	31	20.7	49	24.1	29	13.7	85	23.4	76	20.8	223	19.4	244	25.2	467	22.0
무응답	8	2.4	2	1.0	4	1.4	2	1.3	8	3.9	8	3.8	9	2.5	11	3.0	33	2.9	19	2.0	52	2.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2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6)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학생이 입학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표 18〉과 같다. 폭넓은 친구교제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공공부 23.1%, 자격시험 준비 15.2%, 서어클활동 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은 0.8%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학생활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대학생들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구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폭넓은 친구교제	99	29.9	52	24.9	105	36.6	50	33.3	65	32.0	68	32.1	136	37.4	100	27.4	370	32.1	305	31.5	675	31.8
이 교 성 체	9	2.7	10	4.8	13	4.5	7	4.7	22	10.8	27	12.7	23	6.3	39	10.7	133	11.5	17	1.8	150	7.1
서 어 클 활 동	32	9.7	12	5.7	32	11.1	14	9.3	32	15.8	30	14.2	37	10.2	46	12.6	130	11.3	165	10.8	235	11.1
교 양 서 적 독	18	5.4	13	6.2	4	1.4	15	10.0	8	3.9	2	0.9	14	3.8	7	1.9	26	2.3	55	5.7	81	3.8
자 격 시 험 비	27	8.2	56	26.8	47	16.4	21	14.0	34	16.7	37	17.5	46	12.6	54	14.8	192	16.7	130	13.4	322	15.2
사 회 활 동 여	19	5.7	8	3.8	20	7.0	8	5.3	11	5.4	17	8.0	19	5.2	16	4.4	61	5.3	57	5.9	118	5.6
전 공 공 부	120	36.3	47	22.5	65	22.9	29	19.3	26	12.8	27	12.7	81	22.3	96	26.3	218	18.9	273	28.2	491	23.1
봉 사 동	4	1.2	4	1.9	-	-	2	1.3	2	1.0	2	0.9	1	0.3	1	0.3	6	0.5	10	1.0	16	0.8
무 응 답	3	0.9	7	3.3	1	0.3	4	2.7	3	1.5	2	0.9	7	1.9	6	1.6	16	1.4	17	1.8	33	1.6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7) 서어클활동 희망분야

학생이 활동하고 싶은 서어클 희망분야를 보면, 취미분야가 42.1%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95년도 36.4%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은 스포츠분야로 20.4%로서, '95년도 2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학술분야는 12.5%, 봉사분야 4.4%로서 '95년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도 10.2%나 되어 '95년도에 비해 2.6%나 감소하였다.

〈표 19〉 서어클활동 희망분야

구분 서어클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교양· 학술분야	52	15.7	31	14.8	47	16.4	25	16.7	18	8.9	20	9.4	38	10.4	34	9.3	105	9.1	160	16.5	265	12.5
스포츠 분야	28	8.5	30	14.4	67	23.3	23	15.3	59	29.1	68	32.1	81	22.3	77	21.1	313	27.2	120	12.4	433	20.4
취미 분야	155	46.8	70	33.5	103	35.9	59	39.3	77	37.9	88	41.5	167	45.9	175	47.9	455	39.5	439	45.3	894	42.1
종교 분야	14	4.2	7	3.3	5	1.7	8	5.3	8	3.9	2	0.9	13	3.6	8	2.2	27	2.3	38	3.9	65	3.1
지역및사회 문제분야	9	2.7	12	5.7	11	3.8	8	5.3	7	3.4	3	1.4	2	0.5	5	1.4	26	2.3	31	3.2	57	2.7
봉사 분야	20	6.0	12	5.7	17	5.9	10	6.7	5	2.5	8	3.8	14	3.8	7	1.9	33	2.9	60	6.2	93	4.4
체육 분야	5	1.5	11	5.3	6	2.1	1	0.7	12	5.9	8	3.8	8	2.2	17	4.7	53	4.6	15	1.5	68	3.2
하고싶지 않다	44	13.3	27	12.9	29	10.1	16	10.7	16	7.9	14	6.6	37	10.2	34	9.3	123	10.7	94	9.7	217	10.2
무응답	4	1.2	9	4.3	2	0.7	-	-	1	0.5	1	0.5	4	1.1	8	2.2	17	1.5	12	1.2	29	1.4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8) 입학후 예상되는 걱정거리

학생이 입학후 예상되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문제가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공부문제 33.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관계문제 17.1%, 학자금 조달문제 5.9%, 이성교제문제 3.2%, 숙식문제 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고나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간관리 및 공부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문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공부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입학후 예상되는 걱정거리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자금조달문제	22	6.6	12	5.7	14	4.9	8	5.3	10	4.9	14	6.6	24	6.6	21	5.8	64	5.6	61	6.3	125	5.9
숙식문제	3	0.9	8	3.8	7	2.4	2	1.3	11	5.4	10	4.7	11	3.0	11	3.0	49	4.3	14	1.4	63	3.0
학교공부문제	107	32.3	70	33.5	97	33.8	48	32.0	76	37.4	66	31.1	121	33.2	128	35.1	394	34.2	319	32.9	713	33.6
시간및생활관리문제	123	37.2	84	40.2	106	36.9	50	33.3	63	31.0	67	31.6	135	37.1	123	33.7	383	33.2	368	38.0	751	35.4
이성교제문제	2	0.6	8	3.8	8	2.8	1	0.7	8	3.9	16	7.5	11	3.0	14	3.8	64	5.6	4	0.4	68	3.2
인간관계문제	70	21.1	21	10.0	52	18.1	40	26.7	27	13.3	38	17.9	56	15.4	59	16.2	169	14.7	194	20.0	363	17.1
무응답	4	1.2	6	2.9	3	1.0	1	0.7	8	3.9	1	0.5	6	1.6	9	2.5	29	2.5	9	0.9	38	1.8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19)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74.3%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에는 21.8% 정도이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도 3.0%나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에서 10.0%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는 반응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내고 있어서 재학중 제주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21〉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랑스럽다	62	18.7	61	29.2	77	26.8	35	24.0	49	24.1	33	15.6	85	23.4	60	16.4	293	25.4	170	17.5	463	21.8
그저 그렇다	260	78.5	138	66.0	197	68.6	110	73.3	144	70.9	169	79.7	271	74.5	286	78.4	803	69.7	772	79.7	1,575	74.3
부끄럽다	6	1.8	6	2.9	12	4.2	3	2.0	9	4.4	10	4.7	5	1.4	13	3.6	45	3.9	19	2.0	64	3.0
무응답	3	0.9	4	1.9	1	0.3	1	0.7	1	0.5	-	-	3	0.8	6	1.6	11	1.0	8	0.8	19	0.9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0) 재학중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학생이 대학생생활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정도를 보면, 원한다가 72.1%, 절실히 원한다가 11.3%로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83.4%로 대다수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별, 남녀별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부직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재학중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절실히 원함	38	11.5	20	9.6	40	13.9	18	12.0	18	8.9	26	12.3	41	11.3	39	10.7	119	10.3	121	12.5	240	11.3
원함	248	74.9	130	62.2	201	70.0	116	77.3	141	69.5	160	75.5	251	69.0	283	77.5	812	70.5	718	74.1	1,530	72.1
별로 관심없음	37	11.2	32	15.3	28	9.8	14	9.3	32	15.8	23	10.8	58	15.9	32	8.8	159	13.8	97	10.0	256	12.1
생각한 적이 없음	4	1.2	20	9.6	14	4.9	2	1.3	8	3.9	3	1.4	10	2.7	3	0.8	38	3.3	26	2.7	64	3.0
무응답	4	1.2	7	3.3	4	1.4	-	-	4	2.0	-	-	4	1.1	8	2.2	24	2.1	7	0.7	31	1.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1)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돈마련이 65.3%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폭넓은 사회생활에 17.7%, 학비마련 9.9%를 나타냈으며,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0.4%(8명)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별, 남녀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폭넓은 사회생활	58	17.5	30	14.4	45	15.7	26	17.3	52	25.6	33	15.6	52	14.3	79	21.6	220	19.1	155	16.0	375	17.7
용돈마련	218	65.9	108	51.7	194	67.6	100	66.7	120	59.1	156	73.6	252	69.2	238	65.2	713	61.9	673	69.5	1,386	65.3
학비마련	34	10.3	31	14.8	25	8.7	17	11.3	18	8.9	16	7.5	41	11.3	29	7.9	117	10.2	94	9.7	211	9.9
가족의 생계유지	2	0.6	-	-	4	1.4	-	-	-	-	-	-	1	0.3	1	0.3	5	0.4	3	0.3	8	0.4
무응답	19	5.7	40	19.1	19	6.6	7	4.7	13	6.4	7	3.3	18	4.9	18	4.9	97	8.4	44	4.5	141	6.6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2) 학과(부) 지망동기

학생이 합격된 학과(부)에 지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나 성적을 고려해서가 45.0%로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고, 다음이 가장 원하던 분야이기 때문에 26.8%, 전혀 원하지 않던 분야로 성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16.6%,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60% 정도의 학생은 학과(부) 선택을 할 때 성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는 원하던 분야와 성적을 고려한 것이 거의 비슷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과대학인 경우 45.8%, 해양과학대학인 경우 43.8%의 학생이 전혀 원치 않던 학과(부)에 성적이나 주위 압력 때문에 지망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부적용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24〉 학과(부) 지망동기

구분 학과지망 동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가장 원하던 분야	139	42.0	65	31.1	83	28.9	44	29.3	31	15.3	13	6.1	89	24.5	104	28.5	289	25.1	279	28.8	568	26.8
어느정도 원하던 분야	139	42.0	86	41.1	141	49.1	72	48.0	62	30.5	94	44.3	177	48.6	184	50.4	495	43.0	460	47.5	355	45.0
어느정도 원하던 분야 주위압력	20	6.0	25	12.0	17	5.9	16	10.7	14	6.9	10	4.7	22	6.0	23	6.3	68	5.9	79	8.2	147	6.9
전혀 원치 않던 분야 성적부족	23	6.9	19	9.1	33	11.5	13	8.7	80	39.4	87	41.0	61	16.8	37	10.1	245	21.3	108	11.1	353	16.6
전혀 원치 않던 분야 압력때문	6	1.8	7	3.3	6	2.1	4	2.7	13	6.4	6	2.8	14	3.8	8	2.2	36	3.1	28	2.9	64	3.0
무응답	4	1.2	7	3.3	7	2.4	1	0.7	3	1.5	2	0.9	1	0.3	9	2.5	19	1.6	15	1.5	34	1.6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3) 학과(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학과(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보면,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인이 학과(부) 선택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가 21.4%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모나 선배·친구의 경우도 25.3%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결국 자신의 장래를 짚어질 자신이 학과(부)를 선택할 경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보다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학생과 해양과학대학인 경우는 본인의 영향보다는 부모나 교사, 또는 선배, 친구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22)의 '학과(부) 지망동기'에서 전혀 원치 않던 학과(부)로 지망하게 된 이유임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학과(부)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구분 학과선택 영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선배, 친구	36	10.9	20	9.6	45	15.7	6	4.0	13	6.4	21	9.9	38	10.4	38	10.4	113	9.8	104	10.7	217	10.2
교사	50	15.1	26	12.4	52	18.1	44	29.3	59	29.1	79	37.3	81	22.3	62	17.0	259	22.5	194	20.0	453	21.4
부모	46	13.9	43	20.6	37	12.9	23	15.3	58	28.6	27	12.7	47	12.9	40	11.0	169	14.7	152	15.7	321	15.1
본인	197	59.5	119	56.9	151	52.6	76	50.7	68	33.5	85	40.1	195	53.6	217	59.5	598	51.9	510	52.6	1,108	52.2
무응답	2	0.6	1	0.5	2	0.7	1	0.7	5	2.5	-	-	3	0.8	8	2.2	13	1.1	9	0.9	22	1.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4) 학과(부) 선택시 고려한 주된 요인

학과(부) 선택시 고려한 주된 요인을 보면, 취업전망 때문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학문적 흥미 21.6%, 자신의 적성 21.1%, 입학 가능성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특히 농과대학생은 입학가능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인문대학생은 학문적 흥미를, 법정대학생, 경상대학생, 자연과학대학생 및 공과대학생은 취업 전망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남녀 공히 취업 전망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학문적 흥미와 자신의 적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26.5%와 22.9%로 남학생의 17.5%와 19.6% 보다 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26〉 학과(부) 선택시 고려한 주된 요인

구분 학과선택 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취업전망	58	17.5	69	33.0	140	48.8	29	19.3	45	22.2	60	28.3	92	25.3	141	38.6	333	28.9	301	31.1	634	29.9
사회적 지위	5	1.5	19	9.1	12	4.2	3	2.0	2	1.0	5	2.4	12	3.3	6	1.6	47	4.1	17	1.8	64	3.0
학문적 흥미	116	35.0	51	24.4	39	13.6	38	25.3	30	14.8	26	12.3	88	24.2	71	19.5	202	17.5	257	26.5	459	21.6
입학 가능성	33	10.0	30	14.4	35	12.2	20	13.3	63	31.0	73	34.4	63	17.3	56	15.3	253	22.0	120	12.4	373	17.6
자신의 성취	111	33.5	28	13.4	48	16.7	50	33.3	32	15.8	29	13.7	78	21.4	72	19.7	226	19.6	222	22.9	448	21.1
주위의 압력	5	1.5	9	4.3	9	3.1	10	6.7	25	12.3	18	8.5	24	6.6	8	2.2	70	6.1	38	3.9	108	5.1
무응답	3	0.9	3	1.4	4	1.4	-	-	6	3.0	1	0.5	7	1.9	11	3.0	21	1.8	14	1.4	35	1.7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5) 지망학과(부)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지망학과(부)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를 보면, 선배나 친구가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의 안내서가 27.4%, 교사 20.9%, 잡지나 신문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아직도 중요한 대학 입학정보를 선배나 친구로부터 많이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안내서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7〉 지망학과(부)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구분 학과지망 경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교사	53	16.0	41	19.6	50	17.4	51	34.0	53	26.1	55	25.9	76	20.9	64	17.5	253	22.0	190	19.6	443	20.9
선배 친구	121	36.6	71	34.0	113	39.4	45	30.0	45	22.2	57	26.9	125	34.3	142	38.9	372	32.3	347	35.8	719	33.9
잡지 신문	21	6.3	25	12.0	33	11.5	6	4.0	14	6.9	11	5.2	34	9.3	33	9.0	100	8.7	77	7.9	177	8.3
대학의 안내서	83	25.1	51	24.4	74	25.8	33	22.0	69	34.0	76	35.8	103	28.3	93	25.5	314	27.3	268	27.7	582	27.4
전공 한람	43	13.0	9	4.3	13	4.5	9	6.0	16	7.9	13	6.1	17	4.7	21	5.8	74	6.4	67	6.9	141	6.6
무응답	10	3.0	12	5.7	4	1.4	6	4.0	6	3.0	-	-	9	2.5	12	3.3	39	3.4	20	2.1	59	2.8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6) 학과(부) 선택시기

학생이 학과(부)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중 선택한 경우가 43.8%로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이 고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전에 38.7%, 고교 1~2학년말에 11.4%,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일찍 학과(부)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여 선택함으로써 자칫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시험성적이나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학생과 해양과대학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기간중에 학과(부)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자신의 성적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중학교 이전에 학과(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 학과(부) 선택시기

구분 학과선택 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입학원서 접수기간중	110	33.2	98	46.9	124	43.2	65	43.3	113	55.7	127	59.9	157	43.1	136	37.3	542	47.0	388	40.0	930	43.8
고교3~ 입학원서 접수전	120	36.3	73	34.9	136	47.4	50	33.3	65	32.0	73	34.4	152	41.8	152	41.6	428	37.2	393	40.6	821	38.7
고교1~ 2학년말	73	22.1	18	8.6	18	6.3	20	13.3	18	8.9	9	4.2	31	8.5	54	14.8	116	10.1	125	12.9	241	11.4
중학교 또는 그이전	28	8.5	12	5.7	6	2.1	15	10.0	4	2.0	3	1.4	23	6.3	16	4.4	46	4.0	61	6.3	107	5.0
무응답	-	-	8	3.8	3	1.0	-	-	3	1.5	-	-	1	0.3	7	1.9	20	1.7	2	0.2	22	1.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7) 지망학과(부)에 대한 인지도

학생이 지원하기 전 지망학과(부)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대강 알고 있었거나 잘 알고 있었다가 59.8%에 불과하며,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몰랐다가 39.5%로서 상당수의 학생이 지망학과(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지망학과(부)에 대한 인지도

구분 지망학과 인식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아주 잘 알 있 었다	9	2.7	3	1.4	-	-	2	1.3	5	2.5	1	0.5	5	1.4	5	1.4	22	1.9	8	0.8	30	1.4
꽤 알 있 었다	32	9.7	20	9.6	13	4.5	15	10.0	20	9.9	8	3.8	23	6.3	19	5.2	82	7.1	68	7.0	150	7.1
대 강 알 있 었다	177	53.5	119	56.9	156	54.4	83	55.3	87	42.9	86	40.6	199	54.7	181	49.6	569	49.4	519	53.6	1,088	51.3
알 못 하 는 편 이 었다	102	30.8	53	25.4	97	33.8	41	27.3	61	30.0	72	34.0	108	29.7	130	35.6	345	29.9	319	32.9	664	31.3
전 혀 몰 랐 었다	11	3.3	10	4.8	20	7.0	9	6.0	29	14.3	43	20.3	27	7.4	25	6.8	121	10.5	53	5.5	174	8.2
무 응 답	-	-	4	1.9	1	0.3	-	-	1	0.5	2	0.9	2	0.5	5	1.4	13	1.1	2	0.2	15	0.7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8)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학여부

학생이 현재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보면,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50.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원하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이 25.8%로 나타났으며,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5.9%, 졸업전에 전과해 보겠다는 생각이 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비록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약 21%의 학생은 자신이 원하던 전공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 선택이 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여학생이 54.8%로 남학생의 47.6% 보다 앞서고 있다.

〈표 30〉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 수화여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끝까지 계속하겠다	189	57.1	136	65.1	153	53.3	87	58.0	66	32.5	82	38.7	178	48.9	188	51.5	548	47.6	531	54.8	1,079	50.9
원하던학과를 전공으로 택해서보겠다	81	24.5	36	17.2	91	31.7	34	22.7	56	27.6	64	30.2	96	26.4	90	24.7	303	26.3	245	25.3	548	25.8
다시입시공부를 하겠다	12	3.6	8	3.8	12	4.2	8	5.3	17	8.4	11	5.2	20	5.5	21	5.8	68	5.9	41	4.2	109	5.1
졸업전에전과를해보겠다	5	1.5	8	3.8	5	1.7	5	3.3	17	8.4	30	14.2	30	8.2	18	4.9	85	7.4	33	3.4	118	5.6
학사관입을해서원하던전과를해보겠다	18	5.4	4	1.9	10	3.5	4	2.7	31	15.3	23	10.8	19	5.2	17	4.7	83	7.2	43	4.4	126	5.9
대학원에진학하여원하던전과를해보겠다	18	5.4	10	4.8	11	3.8	8	5.3	11	5.4	1	0.5	10	2.7	18	4.9	35	3.0	52	5.4	87	4.1
무응답	8	2.4	7	3.3	5	1.7	4	2.7	5	2.5	1	0.5	11	3.0	13	3.5	30	2.6	24	2.5	54	2.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29)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학생들이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을 보면,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에 87.1%나 반응하고 있어서 직업과 전공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도 10.9%나 된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학생이 다른 단과대생 보다 전공과 무관한 직종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장래에 갖고 싶은 직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과 무관한 직종	29	8.8	18	8.6	19	6.6	8	5.3	50	24.6	37	17.5	50	13.7	20	5.5	143	12.4	88	9.1	231	10.9
전공과 관련된 직종	148	44.7	109	52.2	140	48.8	73	48.7	66	32.5	90	42.5	154	42.3	158	43.3	489	42.4	449	46.3	938	44.2
전공을 살릴수 있는 직종	149	45.0	68	32.5	126	43.9	67	44.7	82	40.4	84	39.6	156	42.9	177	48.5	490	42.5	419	43.2	909	42.9
무응답	5	1.5	14	6.7	2	0.7	2	1.3	5	2.5	1	0.5	4	1.1	10	2.7	30	2.6	13	1.3	43	2.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0) 학생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학생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을 보면,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가 42.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28.1%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 12.3%, 인생관에 대한 조언 11.5%,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 3.1%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는 없으나 인문대학과 공과대학은 전공학문의 지도를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생은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더 기대하고 있다.

〈표 32〉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구분 교수와 의 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학문의 지도	107	32.3	61	29.2	71	24.7	30	20.0	40	19.7	52	24.5	98	26.9	136	37.3	314	27.3	281	29.0	595	28.1
전공이외의 학문적지도	47	14.2	22	10.5	38	13.2	10	6.7	29	14.3	41	19.3	36	9.9	38	10.4	148	12.8	113	11.7	261	12.3
인생관에 대한 조언	30	9.1	23	11.0	46	16.0	20	13.3	28	13.8	27	12.7	40	11.0	30	8.2	144	12.5	100	10.3	244	11.5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	10	3.0	10	4.8	8	2.8	3	2.0	8	3.9	4	1.9	12	3.3	10	2.7	41	3.6	24	2.5	65	3.1
따뜻한 인간적인관계	128	38.7	87	41.6	120	41.8	85	56.7	94	46.3	79	37.3	169	46.4	139	38.1	468	40.6	433	44.7	901	42.5
인간적인관계를 갖고 싶지않다	4	1.2	-	-	3	1.0	2	1.3	2	1.0	7	3.3	4	1.1	3	0.8	17	1.5	8	0.8	25	1.2
무응답	5	1.5	6	2.9	1	0.3	-	-	2	1.0	2	0.9	5	1.4	9	2.5	20	1.7	10	1.0	30	1.4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1)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 및 형태

학생이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과외지도를 받았는가를 보면, 과외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가 68.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과외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학원수강이 18.2%로 가장 높았고, 개인지도 9.6%, 그룹지도 1.0%이며, 개인 또는 그룹 등 두가지 형태 이상 받은 학생은 0.9%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

면, 학원수강 외의 다른 형태의 과외는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원수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33〉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 및 형태

구분 과외형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개인지도	42	12.7	12	5.7	26	9.1	15	10.0	42	20.7	19	9.0	30	8.2	17	4.7	111	9.6	92	9.5	203	9.6
그룹지도	2	0.6	3	1.4	3	1.0	1	0.7	-	-	2	0.9	5	1.4	5	1.4	15	1.3	6	0.6	21	1.0
학원수강	83	25.1	39	18.7	46	16.0	26	17.3	29	14.3	17	8.0	57	15.7	88	24.1	174	15.1	211	21.8	385	18.2
입주과외	-	-	1	0.5	-	-	-	-	-	-	-	-	1	0.3	-	-	2	0.2	-	-	2	0.1
한 없	194	58.6	150	71.8	209	72.8	102	68.0	128	63.1	171	80.7	260	71.4	246	67.4	824	71.5	636	65.6	1,460	68.8
두형태의 과외지도	4	1.2	1	0.5	1	0.3	2	1.3	1	0.5	1	0.5	6	1.6	3	0.8	8	0.7	11	1.1	19	0.9
세형태의 과외지도	2	0.6	1	0.5	-	-	-	-	-	-	-	-	1	0.3	1	0.3	2	0.2	3	0.3	5	0.2
네 형태 모 두	-	-	-	-	-	-	-	-	-	-	-	-	1	0.3	-	-	1	0.1	-	-	1	0.0
무응답	4	1.2	2	1.0	2	0.7	4	2.7	3	1.5	2	0.9	3	0.8	5	1.4	15	1.3	10	1.0	25	1.2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2) 고교생활의 만족도

학생의 고교생활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가 42.6%, 그저 그랬다가 37.9%, 만족스럽지 못했다가 8.5%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는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에 남학생은 39.9%이나 여학생은 45.7%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만족스러운 고교생활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 고교생활의 만족도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만족	33	10.0	14	6.7	21	7.3	12	8.0	16	7.9	9	4.2	23	6.3	18	4.9	76	6.6	70	7.2	146	6.9
만족	131	39.6	93	44.5	137	47.7	75	50.0	72	35.5	75	35.4	175	48.1	145	39.7	460	39.9	443	45.7	903	42.6
그저그랬다	128	38.7	62	29.7	100	34.8	47	31.3	84	41.4	100	47.2	129	35.4	154	42.2	444	38.5	360	37.2	804	37.9
불만족스러웠다	27	8.2	21	10.0	22	7.7	14	9.3	21	10.3	19	9.0	23	6.3	34	9.3	108	9.4	73	7.5	181	8.5
매우불만족	9	2.7	12	5.7	6	2.1	2	1.3	6	3.0	8	3.8	12	3.3	13	3.6	49	4.3	19	2.0	68	3.2
검정고시출	1	0.3	5	2.4	1	0.3	-	-	1	0.5	-	-	1	0.3	-	-	9	0.8	-	-	9	0.4
무응답	2	0.6	2	1.0	-	-	-	-	3	1.5	1	0.5	1	0.3	1	0.3	6	0.5	4	0.4	10	0.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3) 학생 자신의 대인관계

학생 자신의 대인관계를 보면, 원만하다는 편이 91.9%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원만하지 않고 힘들다는 반응이 7.4%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원만하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원만하지 못하다는 반응에는 남학생이 8.6%로서 여학생의 6.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5〉 대 인 관 계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원만하다	25	7.6	18	8.6	41	14.3	21	14.0	29	14.3	19	9.0	44	12.1	34	9.3	124	10.8	107	11.0	231	10.9
원만한편이다	278	84.0	173	82.8	232	80.8	120	80.0	155	76.4	175	82.5	288	79.1	298	81.5	918	79.7	801	82.7	1,719	81.0
원만치않다	21	6.3	13	6.2	14	4.9	9	6.0	15	7.4	14	6.6	28	7.7	26	7.1	88	7.6	52	5.4	140	6.6
매우힘들다	6	1.8	1	0.5	-	-	-	-	4	2.0	4	1.9	1	0.3	2	0.5	12	1.0	6	0.6	18	0.8
무응답	1	0.3	4	1.9	-	-	-	-	-	-	-	-	3	0.8	5	1.4	10	0.9	3	0.3	13	0.6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4) 이성친구의 유무

이성친구가 있나 없나를 알아본 결과,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에 11.9%, 자주 만나지는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다에 24.1%, 이성친구가 없다에 62.8%의 반응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6.0%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37.9%로 여학생의 34.0% 보다 이성친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이성친구의 유무

구분 학비부담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	31	9.4	31	14.8	37	12.9	20	13.3	28	13.8	27	12.7	44	12.1	34	9.3	142	12.3	110	11.4	252	11.9
자주 만나지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다	88	26.6	39	18.7	69	24.0	36	24.0	57	28.1	56	26.4	87	23.9	80	21.9	293	25.4	219	22.6	512	24.1
이성친구가 없다	210	63.4	129	61.7	180	62.7	94	62.7	117	57.6	129	60.8	231	63.5	241	66.0	695	60.3	636	65.6	1,331	62.8
무응답	2	0.6	10	4.8	1	0.3	-	-	1	0.5	-	-	2	0.5	10	2.7	22	1.9	4	0.4	26	1.2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352	100.0	969	100.0	2,121	100.0

35)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평소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보면, 적성 및 진로문제가 29.1%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업문제 19.0%, 성격문제 14.5%, 대인관계 11.1%,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34)'이성친구의 유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성 및 진로문제에서는 여학생이 32.2%로 남학생의 26.5%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성관계에서는 남학생이 6.3%로 여학생의 1.8% 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7〉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생활문제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업문제	55	16.6	34	16.3	45	15.7	33	22.0	46	22.7	41	19.3	76	20.9	74	20.3	224	19.4	180	18.6	404	19.0		
성격문제	54	16.3	25	12.0	32	11.1	25	16.7	30	14.8	35	16.5	47	12.9	60	16.4	160	13.9	148	15.3	308	14.5		
외모문제	10	3.0	6	2.9	10	3.5	3	2.0	7	3.4	4	1.9	12	3.3	20	5.5	38	3.3	34	3.5	72	3.4		
이성관계	6	1.8	5	2.4	13	4.5	1	0.7	9	4.4	22	10.4	15	4.1	19	5.2	73	6.3	17	1.8	90	4.2		
건강문제	10	3.0	10	4.8	18	6.3	4	2.7	13	6.4	8	3.8	11	3.0	18	4.9	69	6.0	23	2.4	92	4.3		
부모와의 관계	14	4.2	6	2.9	15	5.2	7	4.7	5	2.5	8	3.8	18	4.9	12	3.3	45	3.9	40	4.1	85	4.0		
종교문제	6	1.8	-	-	2	0.7	2	1.3	3	1.5	3	1.4	4	1.1	2	0.5	9	0.8	13	1.3	22	1.0		
가정의경제 적인문제	11	3.3	14	6.7	15	5.2	9	6.0	7	3.4	9	4.2	18	4.9	14	3.8	55	4.8	42	4.3	97	4.6		
적성 및 진로문제	111	33.5	72	34.4	86	30.0	42	28.0	64	31.5	50	23.6	94	25.8	98	26.8	305	26.5	312	32.2	617	29.1		
성(SEX) 문제	2	0.6	4	1.9	4	1.4	1	0.7	2	1.0	4	1.9	5	1.4	5	1.4	24	2.1	3	0.3	27	1.3		
대인관계	39	11.8	22	10.5	40	13.9	16	10.7	11	5.4	25	11.8	53	14.6	30	8.2	114	9.9	122	12.6	236	11.1		
무응답	13	3.9	11	5.3	7	2.4	7	4.7	6	3.0	3	1.4	11	3.0	13	3.6	36	3.1	35	3.6	71	3.3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6) 개인문제의 의논대상

학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5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22.5%, 어머니 10.8%, 형제 또는 친척 8.1%, 아버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아버지를 의논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25.7%로 여학생의 18.7%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남학생이 보다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8〉 개인문제의 의논대상

구분 학비부담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아버지	8	2.4	14	6.7	10	3.5	3	2.0	14	6.9	11	5.2	15	4.1	18	4.9	70	6.1	23	2.4	93	4.4
어머니	42	12.7	27	12.9	29	10.1	20	13.3	22	10.8	14	6.6	42	11.5	34	9.3	96	8.3	134	13.8	230	10.8
친 구	185	55.9	91	43.5	161	56.1	80	53.3	95	46.8	102	48.1	166	45.6	186	51.0	548	47.6	518	53.5	1,066	50.3
교 사	1	0.3	-	-	-	-	-	-	-	-	1	0.5	1	0.3	1	0.3	3	0.3	1	0.1	4	0.2
선 배	3	0.9	5	2.4	9	3.1	1	0.7	4	2.0	6	2.8	8	2.2	9	2.5	36	3.1	9	0.9	45	2.1
상담교사	-	-	1	0.5	-	-	-	-	2	1.0	3	1.4	-	-	1	0.3	6	0.5	1	0.1	7	0.3
형제또는 친척	21	6.3	17	8.1	23	8.0	14	9.3	16	7.9	14	6.6	41	11.3	26	7.1	77	6.7	95	9.8	172	8.1
본 인 스스로	68	20.5	48	23.0	52	18.1	32	21.3	46	22.7	61	28.8	86	23.6	84	23.0	296	25.7	181	18.7	477	22.5
무응답	3	0.9	6	2.9	3	1.0	-	-	4	2.0	-	-	5	1.4	6	1.6	20	1.7	7	0.7	27	1.3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7)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학생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사치 및 부정부패 28.6%, 경제문제 17.7%,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15.9%, 빈부의 격차문제 11.9%, 상호불신문제 10.3%의 순으로 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시각에서 볼 때, 부정부패 및 경제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남녀별,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표 39〉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구분 한국 사회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문제	55	16.6	41	19.6	55	19.2	22	14.7	42	20.7	35	16.5	45	12.4	80	21.9	214	18.6	161	16.6	375	17.7
빈부의 격차문제	35	10.6	27	12.9	35	12.2	17	11.3	24	11.8	23	10.8	54	14.8	38	10.4	131	11.4	122	12.6	253	11.9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53	16.0	32	15.3	40	13.9	20	13.3	33	16.3	41	19.3	64	17.6	54	14.8	191	16.6	146	15.1	337	15.9
청 소 년 비행문제	20	6.0	6	2.9	13	4.5	9	6.0	7	3.4	14	6.6	19	5.2	16	4.4	63	5.5	41	4.2	104	4.9
사회질서 (범죄·교 통) 문제	33	10.0	12	5.7	16	5.6	12	8.0	23	11.3	20	9.4	35	9.6	34	9.3	108	9.4	77	7.9	185	8.7
사 치 및 부정부 패문 제	87	26.3	64	30.6	99	34.5	50	33.3	52	25.6	57	26.9	101	27.7	96	26.3	311	27.0	295	30.4	606	28.6
상 호 불신 문제	42	12.7	17	8.1	26	9.1	18	12.0	16	7.9	20	9.4	43	11.8	37	10.1	108	9.4	111	11.5	219	10.3
무 응 답	6	1.8	10	4.8	3	1.0	2	1.3	6	3.0	2	0.9	3	0.8	10	2.7	26	2.3	16	1.7	42	2.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8)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역개발문제에 38.0%, 문화의 낙후성문제 28.5%, 환경보존문제 9.8%, 상공업의 약화 5.9%, 교육문제 4.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지역개발문제에 남학생이 37.5%의 반응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38.6%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학생이 지역개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문화의 낙후성문제에서도 여학생이 38.4%인 반면, 남학생은 20.2%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0〉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청 소 년 비행문제	3	0.9	4	1.9	12	4.2	1	0.7	10	4.9	12	5.7	17	4.7	8	2.2	59	5.1	8	0.8	67	3.2
지역개발 문제	128	38.7	83	39.7	119	41.5	50	33.3	71	35.0	76	35.8	129	35.4	150	41.1	432	37.5	374	38.6	806	38.0
상공업의 약화	9	2.7	12	5.7	17	5.9	10	6.7	11	5.4	17	8.0	24	6.6	26	7.1	98	8.5	28	2.9	126	5.9
교통문제	4	1.2	6	2.9	2	0.7	3	2.0	8	3.9	3	1.4	8	2.2	3	0.8	24	2.1	13	1.3	37	1.7
문화의 낙 후성문제	127	38.4	43	20.6	79	27.5	70	46.7	31	15.3	55	25.9	104	28.6	96	26.3	233	20.2	372	38.4	605	28.5
환경보존 문제	26	7.9	24	11.5	31	10.8	9	6.0	20	9.9	22	10.4	32	8.8	43	11.8	122	10.6	85	8.8	207	9.8
교육문제	16	4.8	6	2.9	9	3.1	4	2.7	4	2.0	13	6.1	11	3.0	23	6.3	45	3.9	41	4.2	86	4.1
농업문제	1	0.3	7	3.3	4	1.4			7	3.4	5	2.4	10	2.7	4	1.1	29	2.5	9	0.9	38	1.8
제주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7	2.1	17	8.1	13	4.5	3	2.0	35	17.2	9	4.2	23	6.3	5	1.4	85	7.4	27	2.8	112	5.3
무응답	10	3.0	7	3.3	1	0.3			6	3.0			6	1.6	7	1.9	25	2.2	12	1.2	37	1.7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39)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실력에 38.4%로 가장 많은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력 29.9%, 인간관계 15.9%, 인격 5.8%, 학벌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실력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여학생이 43.7%로서 남학생의 34.0%보다 더 큰 반응을 보였으나, 인간관계에서는 남학생이 18.1%로 여학생의 13.2% 보다 더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운이라고 보는 견해도 남학생은 3.2%이나 여학생은 1.0%로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실력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공의조건																							
학 별	5	1.5	5	2.4	12	4.2	4	2.7	7	3.4	5	2.4	15	4.1	15	4.1	43	3.7	25	2.6	68	3.2	
가문·배경	7	2.1	4	1.9	6	2.1	1	0.7	3	1.5	5	2.4	1	0.3	7	1.9	22	1.9	12	1.2	34	1.6	
실 력	122	36.9	79	37.8	118	41.1	60	40.0	62	30.5	73	34.4	145	39.8	156	42.7	392	34.0	423	43.7	815	38.4	
인 격	27	8.2	12	5.7	18	6.3	15	10.0	14	6.9	7	3.3	17	4.7	14	3.8	57	4.9	67	6.9	124	5.8	
인간관계	50	15.1	21	10.0	50	17.4	18	12.0	32	15.8	45	21.2	50	13.7	71	19.5	209	18.1	128	13.2	337	15.9	
운	3	0.9	6	2.9	5	1.7	-	-	8	3.9	13	6.1	6	1.6	6	1.6	37	3.2	10	1.0	47	2.2	
노 력	108	32.6	71	34.0	79	26.5	51	34.0	65	32.0	58	27.4	121	33.2	85	23.3	346	30.0	289	29.8	635	29.9	
재 력	2	0.6	2	1.0	1	0.3	1	0.7	7	3.4	5	2.4	5	1.4	6	1.6	22	1.9	7	0.7	29	1.4	
무응답	7	2.1	9	4.3	1	0.3	-	-	5	2.5	1	0.5	4	1.1	5	1.4	24	2.1	8	0.8	32	1.5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40)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 희망여부

학생이 개인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받고 싶은지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가 55.3%로 받고 싶지 않다 41.7% 보다 더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42〉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 희망여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받 고 싶	184	55.6	130	62.2	165	57.5	105	70.0	103	50.7	114	53.8	193	53.0	178	48.8	615	53.4	557	57.5	1,172	55.3
받 고 싶지	134	40.5	69	33.9	119	40.4	45	30.0	91	44.8	95	44.8	160	44.0	175	47.9	501	43.5	384	39.6	885	41.7
무응답	13	3.9	10	4.8	6	2.1			9	4.4	3	1.4	11	3.0	12	3.3	36	3.1	28	2.9	64	3.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41)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보면, 취업문제가 26.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진학문제 16.7%, 학교생활 적응문제 14.1%,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 11.9%, 해외 유학문제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상담은 장학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성격문제, 교우 및 대인관계문제, 가정문제, 종교문제, 이성 및 성문제, 취업문제의 상담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생활 적응문제, 진학 및 해외유학문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구분 상담내용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격문제	17	5.1	5	2.4	15	5.2	12	8.0	12	5.9	13	6.1	26	7.1	20	5.5	74	6.4	46	4.7	120	5.7
교우및대인 관계문제	39	11.8	25	12.0	32	11.1	11	7.3	18	8.9	19	9.0	50	13.7	59	16.2	151	13.1	102	10.5	253	11.9
가정문제	4	1.2	5	2.4	4	1.4	7	4.7	4	2.0	5	2.4	12	3.3	9	2.5	32	2.8	18	1.9	50	2.4
학교생활 적응문제	48	14.5	28	13.4	48	16.7	23	15.3	39	19.2	31	14.6	43	11.8	39	10.7	148	12.8	151	15.6	299	14.1
종교문제	2	0.6	4	1.9	1	0.3	1	0.7	3	1.5	5	2.4	6	1.6	1	0.3	18	1.6	5	0.5	23	1.1
이성 및 성문제	3	0.9	4	1.9	6	2.1	2	1.3	6	3.0	11	5.2	6	1.6	12	3.3	43	3.7	7	0.7	50	2.4
진학문제	56	16.9	44	21.1	35	12.2	35	23.3	35	17.2	28	13.2	72	19.8	50	13.7	163	14.1	192	19.8	355	16.7
해외유학 문제	38	11.5	8	3.8	19	6.6	8	5.3	11	5.4	6	2.8	22	6.0	12	3.3	42	3.6	82	8.5	124	5.8
취업문제	79	23.9	55	26.3	83	28.9	37	24.7	47	23.2	68	32.1	74	20.3	108	29.6	324	28.1	227	23.4	551	26.0
무응답	45	13.6	31	14.8	44	15.3	14	9.3	28	13.8	26	12.3	53	14.6	55	15.1	157	13.6	139	14.3	296	14.0
계	331	100.0	209	100.0	287	100.0	150	100.0	203	100.0	212	100.0	364	100.0	365	100.0	1,152	100.0	969	100.0	2,121	100.0

IV. 요약 및 제언

'97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제주시가 58.1%로 전체의 3/5에 해당되며, 타 시·도는 5.4%로 극히 미약하다. 신입생들은 입학후 주로 본가(61.2%)에서 거주하며, 하숙이나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7.1%나 되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69.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보호자는 대체로 아버지(90.7%)이나, '95년도에 비하면 8.2% 증가하고 있으며, 어머니, 형, 누나, 조부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과 상업, 행정사무직과 판매·서비스업(68.6%)이 주를 이루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이 71.5%로 '95년도 64.0%에 비해 증가하였다.

셋째, 신입생의 가족수는 4~6인 가족이 78.6%로서 '95년도에 비해 4.6%가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은 부모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반응이 71.1%로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74.6%)을 가지고 있다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넷째, 대학 재학중 등록금 또는 생활비의 부담은 주로 보호자가 부담(89.3%)하지만, 이는 '95년도와 비슷(89.4%)하며, 재학중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82.0%나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다섯째, 신입생의 대학진학의 목적은 주로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소질개발(74.6%)에 있으며,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친구교제(31.8%), 전공공부(23.1%), 자격시험을 준비(15.2%)하는 것이며, 입학후 걱정거리로서는 시간 및 생활관리 문제와 학교공부 문제가 69.0%나 차지하고 있어서 대학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입생이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은 21.8%에 불과하며,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도 3.0%나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신입생들은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며(83.4%), 이를 통해 용돈 및 학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학당국은 보다 많은 부업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신입생들이 학과(부)를 선택하게 된 주요인은 취업전망(29.9%)이 가장 높으며, 입학가능성(17.6%) 보다 학문적 흥미(21.6%)와 적성(21.1%)을 더 고려하고 있다. 그리

고 학과(부) 선택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는 선배나 친구(33.9%)로 부터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으며, 대학의 안내서(27.4%)도 정보 제공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과(부) 선택의 시기로는 아직도 입학원서 접수기간중(43.8%)에 하고 있으며, 학과에 대해 잘 모르면서(39.5%) 지망하고 있어서 학과 선택에 따른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학생이 50.9%이나 부전공을 택하거나(25.8%), 학사편입을 하겠다(5.9%), 전과하겠다(5.6%), 입시공부를 다시 하겠다(5.1%)는 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신입생들은 교수들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가장 갖고 싶어 하며(42.5%), 또한 전공학문의 지도(28.1%)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문적인 지도와 더불어 인생관이나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등도 함께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신입생들의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91.9%)이며, 이들은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36.0%로, 남학생(37.7%)이 여학생(34.0%)보다 더 많으며,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열 한번째, 신입생들이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적성 및 진로(29.1%), 학업(19.0%), 성격(14.5%), 대인관계(11.1%)이며,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친구(50.3%)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어머니(10.8%), 아버지(4.4%), 교사(0.2%)를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성인들이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열 두번째, 신입생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사치 및 부정부패(28.6%)와 경제문제(17.7%)를 꼽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의 문제로는 지역개발 문제(38.0%)와 문화의 낙후성(28.5%)을 들고 있다.

열 세번째, 신입생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하며(55.3%), 학생들이 받고 싶은 내용은 취업문제(26.0%), 진학문제(16.7%), 학교생활 적응문제(14.1%), 교우 및 대인관계문제(11.9%), 해외유학문제(5.8%), 성격문제(5.7%) 등이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